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3월 18일
(월요일)

매일플러스뉴스 10면

“구민위한 생산적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칠 터...”

서울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

“집행부와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34만 강북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며 “권위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은 지난 12일 ‘플러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6대 후반기 의장이 되고난 후 당선인사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도 34만 강북구민을 위한 6대정책을 위해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북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구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회차원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예산이 구민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강북구 예산 중 51%가 복지분야에 편성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예산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구민 복지향상을 지역경제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산케이블카 유치 및 관광문화벨트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통해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밖에도 강북구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경전철 사업 진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 대비 △다문화 가정 지원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북구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특히, 강북구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매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집행부에 반영하는 대의기구”라면서 “강북구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 14명 의원 모두는 개인적인 이

익이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34만 강북구민의 의지가 구정에 반영되어 사

다. 이를 위해 의장으로서 권위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34만 강북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구민들을 위해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집행부는 부여된 일을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6대 하반기 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수레바퀴의 양 축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무조건적인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상호균형을 바탕으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협조하는 발전적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은

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산케이블카 유치 및 관광문화벨트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해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방안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경전철 사업 진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 대비, 다문화 가정 지원,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북구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매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집행부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강북구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 14명 의원 모

두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34만 강북구민의 의지가 구정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 시 어려움과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밖으로는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구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제6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34만 강북구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의회가 34만 강북구민의 대의기구로 역할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체격질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고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북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인옥 기자 bodo@mpnews.co.kr



34만 강북구민 복리증진·지역발전 위해 각계각층 의견수렴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업추진시 어려움과 마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밖으로는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일문일답 내용이다
-여러가지 공약사업을 제시하시고 추진하여 오셨는데

▲제6대 후반기 의장이 되고 난 후 당선인사 및 신년사를 통해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 경전철 사업 진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 대비, 다문화 가정 지원 등 34만 강북구민을 위한 위민정치를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북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6대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 의회가 이루어 낸 성과가 뿌리를 잘 내려 열매로 성숙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집행부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34만 강북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구민들을 위해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집행부는 부여된 일을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6대 하반기 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수레바퀴의 양 축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무조건적인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상호균형을 바탕으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협조하는 발전적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역경제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은

▲서울 동북단에 위치한 강북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산업시설 등의 제한시설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관련하여 북한산은 자원으로 가치 높어져 있어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순국선열 묘소 정비 등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강북부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제6대 의회 남은 기간동안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기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회차원의 추진사업은

▲복지예산이 구민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강북구 예산 중 51%가 복지분야에 편성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예산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이